

HAWAII, AS YOU'VE NEVER IMAGINED BEFORE...



# Words of wisdom from The Rainbow State

무지개 나라의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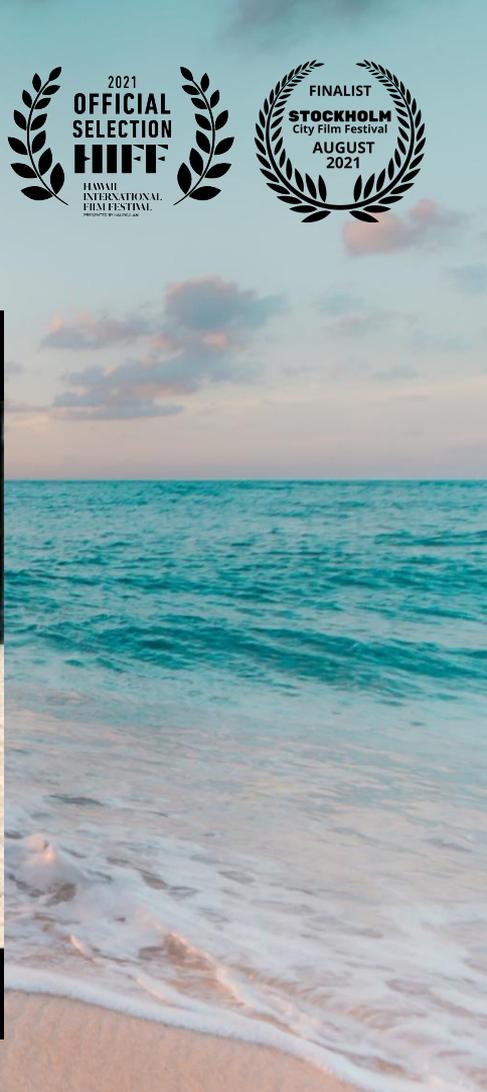
[www.theRainbowWords.com](http://www.theRainbowWords.com)

A FILM BY *Jinyoung Lee Won*

Produced by *Jinyoung Lee Won and Doyeon Lim*

*INTRODUCING HAWAII AS YOU'VE NEVER IMAGINED BEFORE...*

# TRAILER





Introducing **Hawaii** as you've never imagined before...

| 무지개 나라의 유산 |

# Words of Wisdom from the Rainbow State

Written and Directed by Jinyoung Lee Won Produced by Jinyoung Lee Won & Doyeon Lim

[www.theRainbowWords.com](http://www.theRainbowWords.com)

# WORDS OF WISDOM

FROM

# THE RAINBOW STATE

*Running Time*

**20 minutes**

*Written and Directed By*

**Jinyoung Lee Won**

*Produced By*

**Jinyoung Lee Won**

**Doyeon Lim**

*Production Company:*

**Now Production**

*Edited by*

**Doyeon Lim**

*Computer Graphic*

**Dongsoo Kim**

*Cinematographer*

**CORI CHONG**

**TRISTAN CUMMINS**

**MIKE MULLENHOFF**

**HUN-DONG YU**

**GYU WOOK HWANG**

**HYUNHO KO**

*Sound Design*



# SYNOPSIS

하와이 생활 15년차, 기자이자 작가로 살아가고 있는 이진영이 우연히 접한 하와이 한인 이민역사는 놀라움으로 가득하다. 1903년 1월 13일은 최초의 한국인 그룹 102명이 하와이 땅을 밟은 날로, 한국인의 미주 이민역사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그들은 왜, 무엇을 위해 고국을 등지고 먼 이국땅으로 떠났을까.

그로부터 120여년이 흐른 지금, 102명이었던 한국인은 7만여 명이 되어 하와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며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인만이 아니다. 미주 본토와 아시아, 유럽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조화를 이루어 무지개 나라(Rainbow State)를 밝히고 있다. 무지개는 멀리서는 하나의 풍경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일곱가지 색이 각각 고유의 빛을 발한다. 빨강과 주황, 노랑과 초록은 서로 다르지만 각각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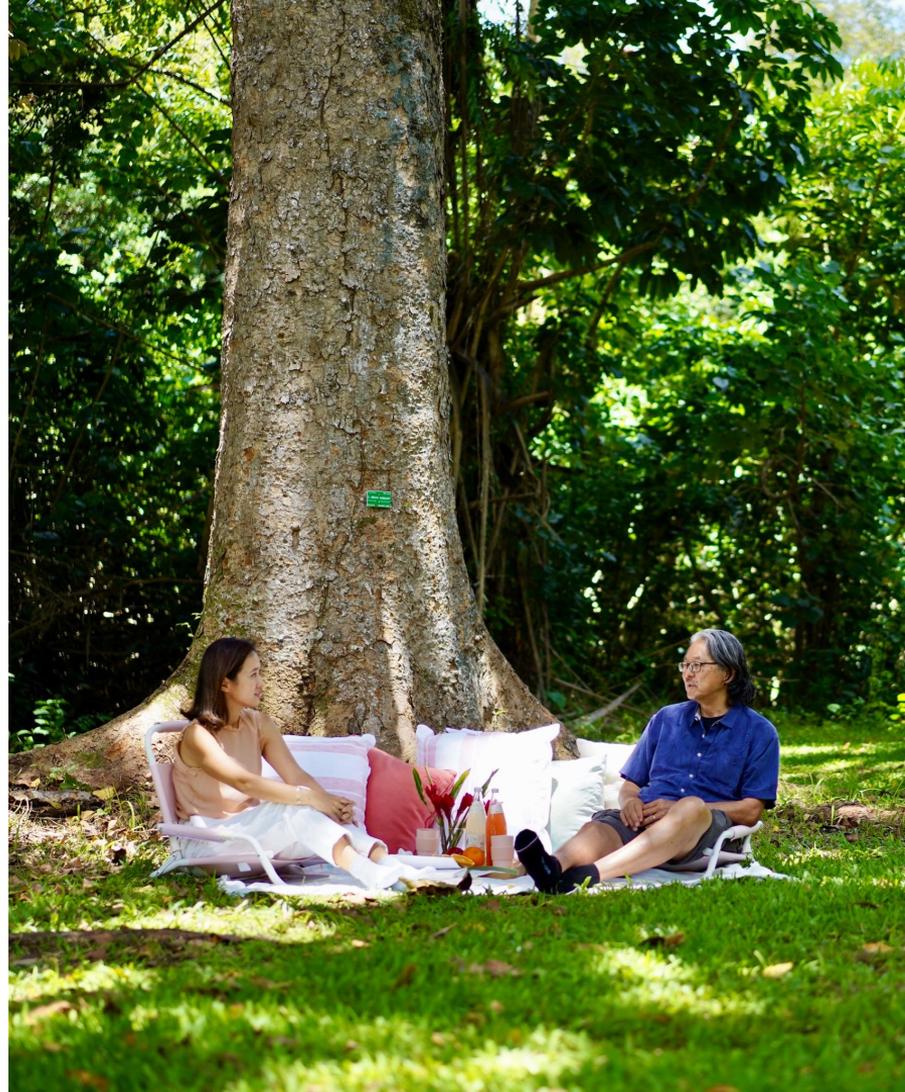
<무지개 나라의 유산>의 연출자이자 프로그램 진행자인 이진영은 잊혀져서는 안될 우리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지혜를 기록하기로 한다. 무지개 속 한국이라는 빛깔을 더 선명히 보여주기 위해, 더 온전히 이해받기 위해. 각종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팬데믹의 시대, 우리의 소중한 이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의 탄생이 기대된다.

# Director's note

하와이 한인 이민 1세대, 우리 선조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오년 전 김창원 이사장을 인터뷰했을 때의 일이다.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꼽히던 그는 하와이의 한 건축회사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회장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미주 한인 최초로 주립대 이사장을 지냈으며 하와이 최초의 한인은행을 설립했다. 촬영을 마치고 김 이사장의 자택을 나서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한가지를 물었다. 월급 사장이던 그로 하여금 평생 기부 활동을 이어가게 한 동력이 무엇인지. 그 때 김 이사장이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띤 채 답하던 모습을 나는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제가 어른이 되고 이민 온 40년 전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단 하루도 저는 우리 선조들이 하와이에서 흘린 피와 땀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루 열시간씩 일하면서도 고국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낸 그 분들의 마음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편안함은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예요. 그러니 저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건



# STORY OF WWRS

김창원 이사장은 하와이 이민 1세대와 동시대를 살았다. 이민 선조들은 김 이사장 부모의 친구들이었고 김 이사장의 이웃 할아버지였으며 할머니였다. 교과서 속 인물로만 생각했던 이민 선조가 실은 나의 가까운 할아버지 이웃이구나 하는 실감 속에서 우리는, 나는, 잊어서는 안될 사랑을 받았구나 깨달았다.

그 후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녹음기 하나 들고 한인 이민 1세대의 후손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다각도로 경이로웠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리라 마음 먹었다. 지난 십 년 하와이에 살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고 알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잊어서는 안될 선조들의 목소리를 정연하게 정리하고 나누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자 김 이사장이 말한 후손된 도리이자 책임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제작에 들어가고서 지난 1년, 하와이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일구어 가고 있는 한인 이민 1세대의 직계 자손들을 여럿 만나 속깊은 대화를 나누는 행운을 누렸다.

그들은 과거 구한 말, 망망대해를 건너 하와이라는 이국의 섬으로 온 한인 이민 1세대인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지혜의 언어를 아낌없이 나누어주었다. 역사책 속 거대한 담론에 가려 보이지 않던 개개인의 희노애락, 진솔한 삶의 지혜가 그들의 언어에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우리 선조들의 목소리를, 지혜를 복원해 내리는 노력은 과거를 기록하는 일이면서 또한 미래를 구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구직난과 전염병, 하늘 모르고 치솟는 땅 값으로 안온한 미래를 꿈꾸기 힘든 요즘의 젊은 세대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세지가 될 것임을 믿는다.

당신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곳곳하게 일상을 영위하고 미래를 꿈꾼 위대한 선조의 후손이라고, 그러니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실망은 할지언정 끝내 좌절은 하지 말라고 토닥여주고, 일으켜 세워줄 것임을 믿는다. 한국도 하와이도 아닌, 경계 모호한 세계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며 방향할 때마다 내가 그분들의 지혜에 기대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 UPCOMING EPISODE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의 직계자손 5인과 나눈 인터뷰. 그들의 삶과 철학에 깃들어 있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기록한다.

## Episode 01

오아후 섬, 새소리 가득한 수목원에서 만난 게리 박 작가는 하와이에서 나고 자란 한인 3세 작가다. 하와이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고 다큐멘터리 감독, 사회운동가로도 활약하고 있는 그의 마음에는 1910년 한국에서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온 친할머니 임옥순(Ok Soon Lim) 여사가 늘 자리하고 있다.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며 열 두명의 자식들을 키워낸 친할머니가 물려준 사랑의 언어들 작가만의 깊은 성찰을 통해 보여준다.

## Episode 02

세계적인 화산 명소, 빅아일랜드 주민 중 해리 김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힐로 시장으로 12년, 민방위국 책임자로 24년, 도합 36년의 공직생활을 한 해리 김은 청렴결백한 정치인의 표본이다. 사진신부인 어머니와 사탕수수공장노동자였던 아버지 슬하 8남매의 막내로 궁핍하게 자란 그가 하와이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데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



# UPCOMING EPISODE

## Episode 03

한국인 최초로 미국 주 대법원장에 선임돼 17년간 하와이 사법부를 진두진휘한 문대양 전 하와이 주 대법원장은 1903년 한국에서 하와이로 최초 항해한 갤릭호에 타고 있던 이민자 102명 중 문정헌씨의 손자다. 지난 2008년, 그는 주류사회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인 데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다.

## Episode 04

지난 2015년, 양성철 전 주미대사와 데이지 양 교수 부부는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에 100만달러를 기부 약정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굳이 하와이에 있는 연구기관에 기부를 하기로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 Episode 05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약하고 있는 마이클 임은 남다른 증조부모를 가졌다. 하와이에 온 최초의 한인이민자 가운데 한 명으로 스물여섯 나이에 하와이로 이민 와 일흔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와이 한인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와 고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안원규, 남편 못지 않은 용기와 기개가 넘친 여성 리더 안정송이 그 주인공이다.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떠난 독립운동가 부부의 숭고한 삶을 그들의 증손자이자, 하와이의 현재를 살아가는 뮤지션 마이클의 시선으로 조명한다.

# DIRECTOR & PRODUCER

## Jinyoung Lee Won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매거진 <얼루어>의 에디터로 일하던 중 우연히 찾은 하와이에 반해 이듬해 하와이로 이주해 2005년 국내 최초의 하와이 여행서 《아이 러브 하와이》를 시작으로 다수의 여행서와 산문집을 출간했다. 한국일보 하와이 지사를 거쳐 한인방송 앵커로 뉴스를 진행했으며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롯해 하와이를 찾은 당대 최고의 인사들을 국내외 매체에 인터뷰했다. 현재 종합 콘텐츠 제작사 <Now Production>을 운영하며 하와이관광청 (@gohawaii.kr) 공식 크리에이터 및 하와이안 항공의 기내지 **HANA HOU!** 한국어판 총괄 에디터로 활약하고 있다. 하와이에서의 삶을 소재로 한 에세이로 동서문학상 입선, 재외동포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지개 나라의 유산>은 이진영의 첫 연출작으로 2021년 4월,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의 '디지털 공공 외교' 프로젝트에 선발돼 제작에 착수했다.



# CO-PRODUCER & EDITOR

## Doyeon Lim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졸업. EBS 방송국 다큐멘터리 <지식채널 e>, <역사채널 e> 조연출을 거쳐 2014년, 종합 프로덕션사 <솔픽처스>를 설립했다. 국내 우수 방송사 프로그램의 포스트 프로덕션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여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관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2013년 서울독립영화제 특별초청작 <SF가는 길> 연출 및 제작, 2017년 북한인권영화제 제작지원작 <북도 남도 아닌 (Why I Left Both Koreas)>의 포스트 프로덕션 및 편집을 맡았으며, <무지개 나라의 유산> 편집 총괄로 제작에 참여했다.





# SCREENINGS

## 초청 영화제

Official Invitation to ***Hawai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Pacific Short Program***

Finalist at ***Stockholm City Film Festival***

Official Selection at ***Tagor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프라이빗 상영

하와이 및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온/오프라인 상영 & 감독과의 질의 응답 세션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상영회는 무료로 진행 가능하며, 10인 이상의 프라이빗 상영 또한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과 함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시간은 19분입니다. 문의:

[jinyoung2@gmail.com](mailto:jinyoung2@gmail.com)

- 상영 목적
- 상영 희망 일자 및 장소
- 관람 인원

# CREDITS

*Written and Directed By*

**JINYOUNG LEE WON**

*Produced By*

**JINYOUNG LEE WON**

*Production Company:*

**DOYEON LIM**

**NOW PRODUCTION**

**SOLEPICTURES**

*Edited by*

**DOYEON LIM**

*Computer Graphic*

**DONGSOO KIM**

*Cinematographer*

**CORI CHONG**

**TRISTAN CUMMINS**

**MIKE MULLENHOFF**

**PAWEL NUCKOWSKI**

**HUN-DONG YU**

**GYU WOOK HWANG**

*Sound Design*

**HYUNHO KO**



*POST PRODUCTION:* **SOLEPICTURES**

*RECORDING STUDIO:* **KOREA TIMES HAWAII/RADIO SEOUL**

*VOICE ACTOR:* **DO SUNG**

*SUBTITLE TRANSLATION:* **SEKON WON, WORLSYS**

*PROOFREADING:* **GWIYEOL CHOI**

*ADVISORY:* **DUK HEE LEE MURABAYAS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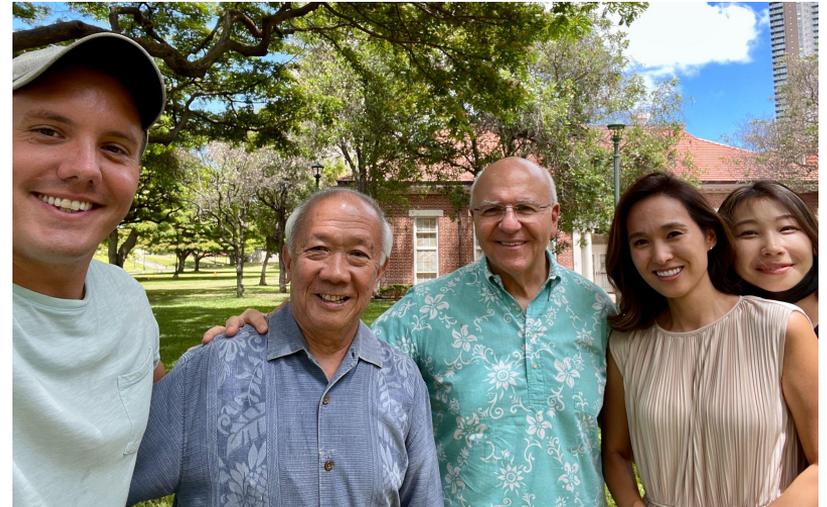
*PROJECT MANAGER:* **DAEUN AHN**

*HAIR MAKE-UP ARTIST:* **KBEAUTY HAWAII by Hailey**

## **COPYRIGHTS**

Photographs:

Korean Immigration Research Institute in Hawaii,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University of Hawaii, Korean American Foundation Hawaii, Gary Pak, Honolulu Star Advertiser



# CONTACTS

영화 관련 궁금한 점 또는 제안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 주시면 48시간 이내 회신 드리겠습니다.

나우 프로덕션 안다원 사원  
[nowhawaiiipr@gmail.com](mailto:nowhawaiiipr@gmail.com)

Hi-res Images of the Film

[DOWNLOAD](#)